



시리즈 ITEM

## 장 프루베의 방에서 찾은 몇 가지 단서들

리빙센스

2023.11.17 09:20 258 읽음

“

지극히 실용적이고 기능주의적인 디자인을 추구한 장 프루베. 20세기 프랑스 모더니즘을 대변하는 건축가이자 가구디자이너인 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양평 구하우스 미술관에 위치한 장 프루베의 방(Jean Prouvé's Room)을 찾았다.



Living  
sense

‘장 프루베’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스탠다드 체어’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 학생들이 교실에서 사용했던 의자로, 오늘날 교실 의자의 전신이기도 하기 때문.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의자는 앞다리에 비해 비교적 넓은 형태의 뒷다리가 특징이다. 의자 뒷다리가 하중의 대부분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는 “재료가 생각하는 것(What the material thinks)”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장 프루베의 의도가 잘 담겨 있다. 당시 비평가들은 그가 구조를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으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장 프루베의 철저한 실용주의, 평범함 속의 비범함을 주목한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단서를 찾기 위해 양평에 위치한 구하우스 미술관을 찾았다. 그곳에 장 프루베의 방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인연이 있듯이, 작품도 나와 인연이 있어서 만난 것”이라 말하는 구하우스의 구정순 관장은 500여 점 이상의 방대한 아트 컬렉션을 소장한 국내의 손꼽히는 컬렉터이다. 그의 컬렉션 중에 장 프루베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지만, 미술관에 오직 한 명의 디자이너 이름을 붙인 방은 장 프루베뿐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파리 생제르맹 거리에 있는 빈티지 숍에서 시테 베드(Cité Bed)를 우연히 만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시테 베드는 1930년 파리의 낭시(Nancy)에 있는 대학 기숙사를 위해 처음 제작된 것으로, 구정순 관장이 이 작품을 구매했을 땐 매스스터디 조민석 건축가가 구하우스 미술관 설계에 몰두하고 있던 시기였다. “시테 베드를 소장하면서 장 프루베의 방을 구상했고, 건축가에게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청했지요.” 시테 베드뿐 아니라 기숙사를 위해 제작한 시테 암체어, 스탠드드 체어를 비롯해 포텐스 월 램프, 레오나지(Rayonnage) 선반 등으로 꾸민 이 공간은 1930년대파리 낭시 지역 대학의 실제 기숙사 방을 떠올리게 한다. 기숙사 학생이 된 기분으로 장 프루베의 방을 거닐며 그의 디자인에 관한 흥미로운 단서를 몇 가지 발견했다.

“

단서 1. 그는 실용주의의 끝판왕이다



구정순 관장이 장 프루베의 방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시테 베드를 구입하면서부터다. 장 프루베는 파리 낭시 대학의 작은 기숙사 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간결한 데이베드 형태를 고안했는데, 헤드보드에 목재 상판을 설치해 책상 겸 탁자 기능을 추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랍과 선반을 포함한 탁자는 앞에 의자를 두고 책상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디자인은 1949년부터 가정용으로 재생산되었다가 1953년 생산이 중단되어 현재는 빈티지로만 접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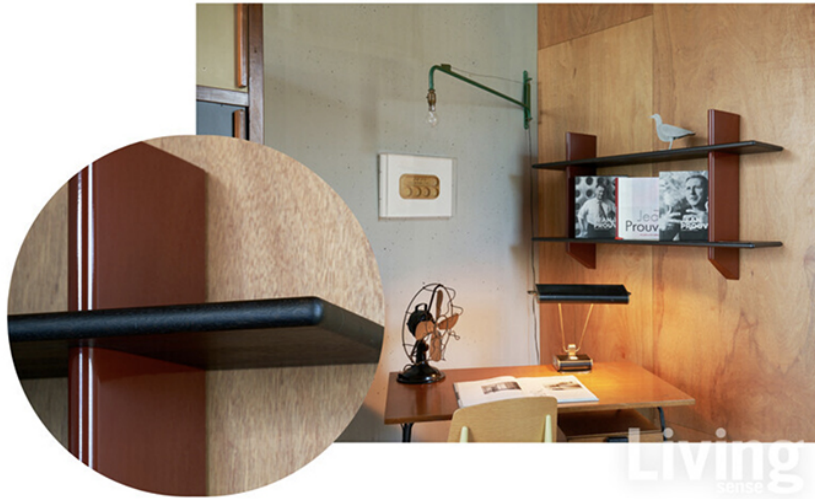
단서 2. 그는 원형을 좋아했다



구하우스 내 장 프루베의 방은 원형을 모티프로 한 내부 디자인이 돋보인다. 욕실 타일, 동그란 거울, 그리고 문에 뚫린 원형 창은 모두 장 프루베의 건축물에 주로 사용된 패널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조립과 해체가 쉬운 주택 구조를 연구한 장 프루베는 벽돌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닌, '건물 주위를 가볍게 감싸는' 형태로 집을 설계했다. 그가 '커튼 월(Curtain Wall)'이라 부른 패널에는 통풍과 채광을 고려한 원형 창을 적용했는데, 이는 그가 만든 건축 작품의 상징적인 특징이 됐다.

“

단서3. 그는 재료를 혼합하는 엔지니어다



장 프루베가 디자인한 대부분의 가구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녔다. 바로 각기 다른 소재가 혼합됐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를 건축가 혹은 디자이너라고 부르지만, 정작 자신은 엔지니어에 더 가깝다고 여겼던 장 프루베는 금속 세공 기술을 활용해 강철, 알루미늄을 가구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여기에 목재나 가죽, 패브릭, 유리 등을 기능에 맞게 조합했다. 예를 들어 레오나지 선반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로 선반은 목재로, 수직 프레임은 스틸 소재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단서4. 그는 금속만큼이나 목재를 애용했다.



1. Agence Photographique de la Réunion des musées nationaux © RMN and ProLitteris

구하우스 내부에서 장 프루베의 방만이 목재로 벽과 천장이 마감된 이유는 장 프루베가 1954년 가족을 위해 디자인한 메종 프루베(Maison Prouvé)를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작업장이었던 아틀리에 장 프루베(Ateliers Jean Prouvé)에서 제작한 표준 모듈 부품을 조립해 완성한 이 주택은 “내가 꿈꾸는 집은 공장에서 만든다”는 그의 꿈을 어느 정도 실현한 사례다. 내부를 목재로 마감한 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더한다.

“

단서 5. 그는 의외로 화가였다



장 프루베의 건축과 가구를 논할 때 색상은 종종 간과되곤 하지만, 그는 색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화가이자 조각가였고, 예술적인 재능을 그에게 아낌없이 물려주었다. 재료의 본질이 물체의 미학을 결정한다고 믿은 장 프루베는 외부 요인에 의해 부식되는 강철을 자연스럽게 처리하기 위해 고유의 색상 팔레트를 개발했다.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따뜻한 색조가 바로 그것. 구정순 관장은 그중에서도 초록 밀밭을 닮은 그린 컬러를 이 방의 포인트 색상으로 선택했다.



#### TIP 장 프루베에 입문하기 위한 필수 코스

파리 바스티유 지역에 위치한 갤러리 파트리크 세귄(Galerie Patrick Seguin)은 꼭 기억해두자. 이 갤러리는 장 프루베, 살로트 페리앙, 피에르 잔느레, 르 코르뷔지에, 장 루아에르 등 프랑스 모더니스트 디자이너들을 깊게 탐구하며, 장 프루베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장 프루베의 다양한 오리지널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고, 그들이 출판한 장 프루베와 관련한 서적 또한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